

신중년 인생 2막 도전...내일 '부산 50+일자리 박람회'

송고시간 | 2024-10-16 08:10



부산 50+일자리 박람회

[부산시 제공]

(부산=연합뉴스) 조정호 기자 = 부산시는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일대에서 신중년의 인생 2막 도전을 지원하는 '2024년 부산 50+일자리 박람회'를 한다고 16일 밝혔다.

부산시와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가 주최·주관하고 부산은행이 후원하는 이 박람회는 50세 이상 일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.

이번 행사는 ▲ 채용 상담 및 기업 일자리 채용 ▲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채용관 ▲ '50+생애재설계대학' 체험 행사 ▲ 증명사진 촬영관 ▲ 메이크업 서비스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.

채용행사장에는 ▲ 운전·운송 ▲ 판매·서비스 ▲ 경비·환경·미화 ▲ 기계·생산·건축 분야에 취업 상담을 하는 공간이 마련된다.

'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채용관'에는 택시 업체별로 1 대 1 맞춤 채용상담이 진행된다.

지능형 인공지능 챗GPT, 드론 조종, 건강 관리, 디지털 디자인, 보건의료, 예방 운동, 브런치·양조 기술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.

'시니어모델 패션쇼'에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'부산시 50+생애재설계대학' 수강생 50여명이 참여한다.

ccho@yna.co.kr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>

2024/10/16 08:10 송고

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

Copyright (C) Yonhapnews. All rights reserved.